



제목	인도 세밀화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다른 생각
발행일	2015. 7. 15.
저자	王鏞 이재연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371
ISBN 또는 ISSN	978-8992486224

내용 요약

이 책은 인도 세밀화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책이다. 인도 세밀화의 역사적 연혁과 풍격의 변화를 서술하고, 서로 다른 화파와 화가 및 작품들의 예술 특색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190여 컷의 인도 세밀화를 대표하는 도판들을 엄선하여 수록했다. 세밀화는 일종의 소형 회화로서 대부분이 서적을 장식하는 삽화에 이용되었다. 서양의 세밀화는 중세의 필사본 삽화에서 시작되었는데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소형 초상화가 유럽의 시대적 풍조를 이루었다.

동양에서는 페르시아 세밀화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인도 세밀화도 상당한 명성을 누렸다. 특히 16세기 페르시아 세밀화가 인도에 도입되어 무갈 세밀화의 탄생을 촉진하였음을 주목할 만하다. 16세기 초에 페르시아인이 이란에 건국한 사파비 왕조(Safavid Dynasty, 1502~1736년) 통치 시기는 페르시아 세밀화의 황금 시대였다. 당시 고전 페르시아 세밀화의 대가였던 비흐자드(Bihzad, 1455~1536)의 화풍이 인도에 전해졌는데 이는 인도 역사상 가장 강대한 이슬람 제국인 무갈 왕조 시대(1526~1858년)의 인도 세밀화에 영향을 주었다. 무갈 세밀화는 무갈 황가의 후원을 받은 궁정회화였으며, 주로 왕실의 초상·왕조의 역사·전쟁장면·수렵광경과 궁정생활을 그렸다. 여기에는 페르시아 세밀화의 장식성과 인도 전통 회화의 생동감 넘치는 활력과 서양 회화의 사실적 기법 등 세 가지 요소를 융합하여 독특한 풍격을 형성하였다.